



# 바이오기술 비롯한 다양한 과학문제를 논의한 국제학술대회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15일(목) 아침 10시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한 인문화센터에서 제17회 러시아-한국-CIS 과학기술 국제컨퍼런스가 개막되었다.

이 대회의 주요목적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아이디어와 의견, 그리고 연구결과를 나누는 데에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대회 참가자로 약 120여 명이 등록했고 그중 50명(한국 참가자 14명을 포함하여)은 러시아 대륙과 외국에서 온 학자들이다.

컨퍼런스를 연 재러한인 과학기술자협회 텐 에디스



회장은 이번에 이미 17번째 과학기술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전설적인 섬 사할린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1991년에 설립한 후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고려인 과학실업자협회와 함께 한국 과학자들의 참여 아래 해마다 이와 같은 국제컨퍼런스를 실시한다고 텐 회장은 덧붙였다. 그동안 컨퍼런스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해 우랄,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서 개최한 바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할린까지 찾아와서 이곳에서 많은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만큼 사할린 과학자들이 대륙의 과학자, 독립 국가연합의 과학자, 그리고 한국 과학자들과 교류를 한다는 점을 중요한 의의로 여긴다며 텐 회장은 강조했다.

또한 주최 측은 항상 청년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들을 위해서 이번 컨퍼런스 일환으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고 텐 에디스 회장이 덧붙였다. 학술대회 일환으로 본회의, 섹션 활동, 좌담회

· 마스터클래스 등 개최되는 행사들은 좋은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이날 행사참가자들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윤수 부회장, 사할린주정부 소속 엑스페르트위원회 과학사무장 콘스탄틴 몰차노브, <카하크>카자흐스탄 고려인과학자협회 문 그리고리 회장, <진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학자협회 윤 류보위, 러시아외무성 유즈노사할린스크대표부 미하일 실라초브 아타세, 재러시아 고려인연합회 김 모이세이 고문, 사할린인문기술대학 자쿠핀 알렉산드르 부총장이 환영의 인사를 했다.

이들은 성공적인 활동을 기원하며 앞으로 서로의 교류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콘스탄틴 몰차노브는 주정부를 대표해 현재 사할린주에서 실시하는 투자계획, 혁신활동, 학술회 개최 등을 소개했다며 러시아 외무성 대표는 사할린과 한국 간 교류에 집중했다. 과학기술자협회 대표들은 주로 연구 활동 교류와 확대를 기원했다.

귀빈들은 일제로 인해 수많은 한인이 사할린에 남아 있게 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개막식은 바로 본회로 이어져 본회에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한국, 우즈베키스탄 연구가들의 물리과학과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발표가 있었다.

오후에는 섹션활동으로 바이오기술, 사회학, 그리고 기계 및 장비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다음 날에는 정보기술, 물리와 과학, 화학과 신자료, 에너지 전기기계, 지구과학 자원 등 워크샵이 개최된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 한국 과총, 학술단체 지원하는 역할

제17회 러시아-한국-CIS 과학기술국제컨퍼런스의 주최자 중 하나는 한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이 단체를 대표한 김윤수 부회장에게 일문일답을 부탁했다.



- 우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를 간단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한국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학술단체, 특히 자연과학과 기술분야의 학술학회 총연합회여서 우리 과총에 소속된 학술단체는 약 600여개가 됩니다. 우리는 일종의 모든 학술단체의 코어디네이

션을 하고 있습니다.

과총은 1966년에 설립되었고 기본적인 역할은 학술개발, 국제협력을 비롯 학술단체의 지원하는 것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와는 언제 교류를 시작했나요?

- 러시아와는 1991년부터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주로 모스크바, 시베리아,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컨퍼런스를 가졌는데 사할린은 처음입니다.

- 사할린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과총에서 동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실 사할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는 동안 여러가지 알아본 다음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모색할 생각입니다.

과총 김명자 회장님께서 사할린에 꼭 오셨어야 했는데 '사할린에 가면 그동안 여러가지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특히 과학기술총연에서 이제는 극복해서 새로운 관계를 설립해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시려고 합니다.

사할린동포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 사할린과 사할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원하며 앞으로의 교류가 확대되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 이 모 저 모

## <사할린>농구단의 선수 파벨 포드콜진 이 러시아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으로 기록

<사할린>농구단 센터인 파벨 포드콜진은 올해 32세로 그의 키는 2미터 26센치미터로 측정되어 국내에서 최장신자로 러시아 최고기록책에 기록되었다. 그는 <노워시비르스크> 농구단에서 활동하다가 <사할린>농구단으로 이적하여 2016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가장 키가 큰 그는 23번의 티셔츠를 선택해 이미 1년 동안 도서지역의 농구단을 대표하고 있다.

러시아 최고기록책 대표들은 선수들의 신장을 측정하고 다른 장신자의 명단을 확인한 후 사할린 농구 선수인 파벨 포드콜진을 최종 우승자로 인정하면서 파벨 포드콜진에게 러시아의 최장신 인증서를 수여했다.

### Игрок "Сахалина" Павел Подкользин признан самым высоким человеком в России

Центровой баскетбольной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 Павел Подкользин внесен в Книгу рекордов России как самый высокий человек страны. Рост 32-летнего спортсмена составляет 2 метра 26 сантиметров.

За "Сахалин" Павел Подкользин выступает с августа 2016 года. В островную баскетбольную команду спортсмен перешел из "Новосибирска". Большой во всех смыслах человек выбрал себе майку с 23 номером и вот уже год защищает в ней цвет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ниги рекордов России после измерения роста спортсмена и сверки его показателей со списком других "великанов" призна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баскетболиста победителем. Павлу Подкользину вручили специальный сертифика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статус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человека в России.

### 사할린에서 장편 역사영화 촬영

사할린에서 왈렌틴 피쿨의 <유배지> 소설을 장편 역사 예술영화로 제작하기 위한 촬영이 2017년에 착수될 계획이다.

올레그 체르위냐크 감독을 비롯하여 현재 영화제작팀은 대중장편의 배우와 촬영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중이다.

제작진은 소셜 네트워크<Vkontakte>에 "혹시 당신이 좋은 목수이거나 화가, 전기기사 또는 운전기사, 목조조각에 종사하는 분이거나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면 [kasting-ostrov@mail.ru](mailto:kasting-ostrov@mail.ru) 로 메일을 주세요"라는 광고를 실었다.

배우 지원자들은 편지에 개인정보(성명, 생일, 신장, 옷과 신발 사이즈)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하고 자유형식으로 자기 소개를 써서 사진 2-3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배우로서가 아닌 영화촬영에 지원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요구사항은 인체측정 정보를 제외하고 위와 동일하게 제출하면 된다.

### На Сахалине снимут полнометраж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фильм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ут съемки полнометраж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фильма по роману Валентина Пикуля «Каторга». Съемки запланированы на 2017 год.

Съемочная группа во главе с режиссёром Олегом Червоняком сейчас занята набором актёров для массовых сцен и полезных для съёмок людей.

- Если вы хороший плотник или художник, электрик или водитель, занимаетесь резьбой по дереву и просто хороший человек, напишите нам письмо на [kasting-ostrov@mail.ru](mailto:kasting-ostrov@mail.ru), - говорится в объявлении, которое творческая группа разместила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ВКонтакте».

Актёры должны указать в письме личные данные (ФИО, дату рождения, рост, размер одежды и обуви) и кратко написать о себе в свободной форме, приложить 2-3 фотографии. Для тех, кто хоче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съёмках фильма в другом качестве, - требования те же, но без антропометрических данных.

### 러시아 지역들 중 사할린에 대한 책 시리즈가 우수 도서로 선정

<루베즈>태평양출판사가 <올해 우수 도서>전국 콩쿠르에서 또다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전례에 따라 이 행사는 러시아도서출판협회가 개최하고 있다. <루베즈>출판사는 두 부문에서 우승했다. 출판사는 명예로운 표창장과 첫 인쇄자인 이반 표도로브의 트로피를 받았다.

권위있는 이 도서 콩쿠르에서 출판사 <사할린주의 도시들>의 새로운 시리즈는 <러시아 지역들에 대한 우수 도서> 부문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차지했다. 책 시리즈는 러시아어와 영어로 코르사코브, 네벨스크와 돌린스크에 대한 기록과 함께 대형 칼라 이미지의 삽화들이 삽입된 3권(선물용 케이스에 포장)으로 되어 있다.

(8면에 계속)

# 유즈노사할린스크, 수천 명의 시민이 러시아의 날 기념

지난 12일<러시아의 날>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아침부터 레닌시청광장에서 <러시아는 우리다>란 집회-공연에 베테랑, 사할린주의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사할린주민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오늘 우리는 이날을 맞아 우리 위대한 역사와 우리 국민의 승리자이며 건립자에 대해 특별 감회를 느낍니다. 이 땅



에 대한 애정과 단합할 줄 아는 능력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나라를 여러 번 구해냈습니다. 1990년 6월 12일 국가 독립권 선언 채택은 변혁의 시기에 한 기점이 되었고 러시아 운명에 새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발전, 인권과 민간인의 자유 우선권에 대한 중요한 선택권을 만들어냈습니다"라며 주지사는 강조했다.

주지사는 축하에서 국가의 상징인 국기, 애국가와 국가 문장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귀중하게 여겨서 항상 보존하고

지켜가야 할 특별한 의미들을 지닌 것들을 강조했다. 이날 국기 게양은 올림픽 복싱 챔피언인 올레그 사이토브가 하고 사할린예술전문대의 합창단이 군악 오케스트라 반주로 애국가를 선창하여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도 함께 따라 불렀다.

명절 행사가 다른 지역에서도 각각 진행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공식적인 명절 행사는 주민들의 노래와 무용 공연으로 이어졌다. 활동적 행사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은 자전거퍼레이드에 참가했고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유희시설과 놀이가 펼쳐지고 광장 한켠으로는 지방 토속상품의 박람회도 열렸다. 주중양도시 여러 행사장들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행사들을 누릴 수 있었다. 이날 행사는 가가린공원에서 펼쳐진 화려한 불꽃놀이로 마무리되었다.

(취재: 이에식기자)

# 사.할.린.

##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도요하라 탄산에서만 근 150명의 한인 탄부들이 갑자기 연행되었다. 붓집 하나만 들고 150명 중에 42명은 가족을 도야하다 탄산에 두고 끌려간 것이다. (...)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를 일본 정부에 빼앗기고 말았다.

아버지가 이중징용으로 끌려간 그때, 어머니는 겨우 32세였고 큰아들 명복은 13세에 불과했다. 낯선 타국에서 가장 없이 살아갈 가족의 안부가 걱정되었던지, 아버지는 장남을 붙들고 거둬 당부했다. 앞으로 네가 남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떠나니, 네가 남자로서 가족들을 잘 보살피라고.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한 그 말씀이 끝이었던 거라. 내 인생에서."

★—안명복 지음, 『사할린 이중징용광부 유가족』 1-7부. 이 책에는 가족의 일대기와 이중징용 광부 유가족회의 활동 및 관련 글들이 수록돼 있다.

### 굶어죽은 두 여동생의 뼈를 거두다

전쟁 직후 혼란기에 아버지라는 보호막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매일매일 처절한 투쟁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아직 어렸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무소에서 청소하고 불 때는 정도였고, 여름에는 말을 먹이기도 했지만 보수가 적기는 마찬가지여서 식구 전부가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웠다. 설상가상으로 1946년 4월 사할린의 식량난은 최악이었고, 소련 정부의 배급량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당시에 내가 받은 80루블로는 암시장에서 빵 여덟 덩이밖에 사질 못했어요. 2킬로짜리 빵 여덟 개.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우리말에 배고픈 것보다 더 서러운 것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배가 고파도 누구 하나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라. 생각해보세요. 피난 갔다가 살던 나가야(숙소)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 얼마나 암담했겠냐고..."

돈도 쌀도 없어 십대 내내 배고픔이라는 설움에 시달려야 했던 안명복 선생은, 훗날 책을 통해 당시의 암담했던 심경을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빼앗기고 자기의 귀중한 청춘을 희생시켰으며, 우리 형제남매는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를 영원히 떨쳐버리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버지 있는 사람들은 소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하였으며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였으나, 우리 형제남매들은 그러지 못했다.

장남인 그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다. 어린 두 동생이 그만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만 것이다.

"아버지 있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돌아와서 먹이곤 했지요. 하지만 아버지 없는 아이들은 안 돼. 살 수가 없다고. 내 여동생 둘도 먹지 못해서 한 많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는 14세, 또 하나는 7세였는데, 둘 다 그만 굶어 죽은 거지. 그들은 아마 지금도 일본 정부의 잘못을 저승의 영혼들에게 고발하고 있을 겁니다."

동생들이 죽은 날, 그 시신을 거두는 것은 장남인 그의 몫이었다. 그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잔뜩 주워와, 그 위에 시신을 놓고 불을 질렀다. 연기가 치솟았고 뭐라 표현하기 힘든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어머니는 그 연기가 꺼질 때까지 계속해서 울었다. 그 또한 눈물로 앞이 흐린 가운데, 더듬더듬 여동생 둘의 뼈를 찾아 거두었다.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디선가 스님 둘이 와서 목탁을 치고 오묘(불경)를 읊었다. 그렇게 동생들의 장례는 끝났고, 그와 어머니는 피멍 든 가슴에 두 사람을 묻었다.

### 영혼이나마 아들 찾아가겠다던 아버지의 묘 앞에서

그 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견뎌가며 목숨을 부지하는 가운데, 안명복 선생은 해방 후 1946년에 아버지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환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건 반가운 소식이었으나 당시에는 소련 치하의 사할린과 한국 사이에 놓인 이념의 장벽이 너무나 높아져 제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방문은커녕 서신 왕래조차 어려웠다. 결국 부친 안차문 선생은 사할린에 남겨진 가족 소식을 끝내 듣지 못한 채 1984년 3월 29일에 사망했고, 안명복 선생은 한소 수교(1990)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 사실을 전해 들었다.

뒤늦게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던 안명복 선생의 크나큰 슬픔이, 아래 인용한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계속)

# 전 세계 한인학자의 축제, '세계한인학술대회' 개최

## 27일부터 3일간 서울서 개최, 17개국 150여명 재외동포 연구자 참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 720만 재외동포사회의 공동 발전을 위해 전 세계 한인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이하 재단)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7 세계한인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재단과 재외한인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7 세계한인학술대회'는 재외동포재단의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마련된 국내 최대 규모의 재외동포 학술 행사다.

국내외 재외동포 학자 및 NPO 활동가들이 글로벌 동포사회의 현황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김계르만 카자흐스탄 국립대 교수, 권오정 일본 류큐쿠대 명예교수, 송창주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교수 등 17개국 150명의 한인학자가 참석한다.

첫날인 27일에는 개회식과 기초강연, 기획세션 I·II, 외교부 장관 주재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세션 I은 서울대 한경구 교수의 진행으로 <동북아 시대의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며, 이어지는 기획세션 II에서는 동포사회의 세대교체 현상에 대해 알아본다.

- 특히, 기획세션 I에 신기욱 스탠퍼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김강일 연변대 동북아연구원장, 김계르만 카자흐스탄 국립대 교수가 각각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동북아 개발협력 실천방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해 발제한다.

대회 2일차에는 기획세션 III·IV와 지역세션 I이 진행된다. 기획세션 III에서는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 거주 동포의 실태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방해하는 제도적 차별을 살펴본다.

동포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세션 IV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재외동포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재외동포의 외연 확대 방안에 집중한다. 20만 명에 달하는 입양한인과 34만으로 추산되는 귀화 재일동포, 전 세계에 퍼진 조선족 등을 재외동포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가적 지원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지역세션은 북미와 중국, 일본, 러시아·CIS, 중남미·동남아, 유럽·오세아니아 등 총 6개 분과로 나눠 28일부터 이를 동안 진행된다. 지역 세션을 통해 지역별 동포학자와 학술단체, NPO 전문가들이 재외한인 학술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에는 폐회식에 앞서 분과별 결과 발표 시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주철기 이사장은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세계 한인학자와 NPO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포사회와 모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내외 재외동포 연구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재외동포의 외연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 ИСТОРИЯ КОРЕИ



В начале 1592 года верховный правитель Японии Хидэёси подготовил для вторжения в Корею 220-тысячную армию и флот в несколько сот кораблей и 9 тысяч человек экипажа. Весной 1592 несколько групп отплыли к берегам Кореи. Первая группа (до 18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а 350 кораблях) 25 мая 1592 года взяла крепости Пусан и Тоннэ. Вторая группа (22 тысячи) с южного побережья двинулась на север. Третья группа (11 тысяч) высадилась в устье реки Нактонган и направились к перевалу Чорён, где в ожесточённом бою разгромила высланное навстречу захватчикам конное войско прославленного своими победами над чжурчжэнями полководца Син Ипа. Поняв, что войско разгромлено, Син Ип покончил жизнь самоубийством. Вслед за этим высадились основные группы численностью 80 тысяч человек.

Из-за плохой подготовки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японцы очень быстро продвигались по стране: уже через 20 дней был занят Сеул, корейские войска потерпели поражение у реки Имджинган и захватчики продвинулись далеко на север. Двор бежал на север, в г. Ыйджу на берегу реки Амноккан, откуда государь Сонджо послал минскому императору мольбу о помощи. Правители Мин не сразу решили оказать помощь Кореи — при дворе императора Ваньли сомневались, что это не провокация, так как военачальники и сановники никак не могли поверить, что на разгром Кореи японцам потребовалось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е японцы, разбив у Хэджончхан конный отряд Ли Гака (около 1000 воинов) — последнюю организованную силу на севере страны, дошли до рубежей провинции Хамгён, где их с восторгом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покоренные чжурчжэни, протестовавшие против политики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корейзации. Они помогли японскому военачальнику Като Киёмаса захватить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принцев, направленных государем Сонджо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новой армии. Продолжение похода войск Като Киёмаса на территорию, где проживали неподконтрольные корейцам чжурчжэни, вызвало ожесточенное сопротивление местного населения. Японцы были блокированы, а затем с большими потерями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отступить на корей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Пример провинции Хамгён был нетипичным — в целом, вторжение завоевателей вызвало волну народного протеста, которая переросла в широкомасштабную партизанскую войну. Многие чиновники, попавшие в плен, отказывались служить японцам и принимали мученическую смерть. В организации отпора захватчикам исключительное значение имели блестящие победы корейского флота летом и осенью 1592 года. Командующий флотом Ли Сунсин, объединив морские силы всего южного побережья, нанес ряд сокрушительных поражений численно превосходящему японскому флоту.

В конце 1592 г. из Китая прибыл первый отряд минских войск, потерпевший неудачу при попытке с ходу овладеть Пхеньяном. В феврале 1593 г. китайцы перебросили в Корею большое войско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Ли Жусуна, сына прославленного победителя над монголами и чжурчжэнями Ли Чэнляна. Соединившись с остатками корейских войск в Ыйджу, Ли Жусун разгромил в битве за Пхеньян войска японского военачальника Кониси Юкинага и начал продвижение в сторону Сеула. Неудачный для китайцев бой у станции Пёкчегван дал японцам возможность оторваться от преследования и спешно стянуть войска на территорию юго-восточной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 где в их руках находились крепости Тэгу, Ульсан, Тоннэ и Пусан, через которые шло снабжение оккупационной армии с перевалочной базы на острове Цусима.

Поскольку японцы были полностью отрезаны от поддержки с моря, войска подвергались постоянным атакам со стороны партизан,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екращени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середине 1593 года японцы согласились на переговоры с целью выиграть время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нового наступления.

Во время наступившего мира среди корейской элиты начали нарастать опасения насчёт влияния Ли Сунсина, который стал народным героем. В результате борьбы придворных клик он был обвинён в нарушении приказа, разжалован в матросы и посажен в тюрьму, где начал продумывать тактику для новой войны с японцами. После известий о том, что адмирал Ли находится в тюрьме, японцы начали вторжение в Корею.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 Корейцы на Фестивале САМОВАРФЕСТ в День Росси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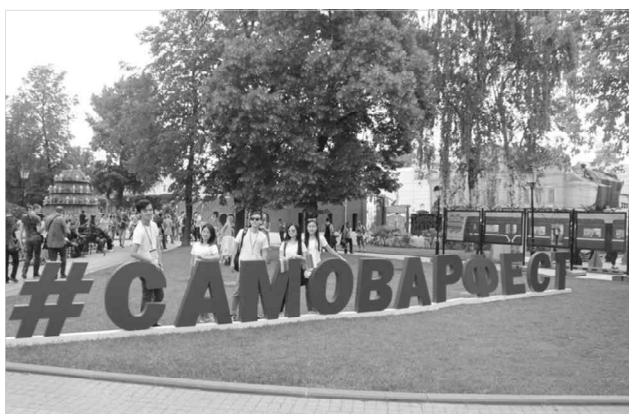
12 июня 2017 года в ден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раздника – Дня России, в Москве в Саду Эрмитаж Департамент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и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вязей города Москвы, совместно с Фондом «Культура наций»,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Дом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им. В.Д. Поленова, провёл Первый Фестиваль Весероссийского русского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САМОВАРФЕСТ.

Фестиваль поддержали Комит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Основная идея и цель мероприяти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бы в праздничной дружеской атмосфере объединить в едином культурном и духов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Показать богатство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знакомить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с национальными традициями других народов. На Фестивале САМОВАРФЕСТ работали свыше 10 тематических площадок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Торжество открыли В.И. Сучков – руководитель

Был зафиксирован рекорд «Самое большое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е чаепитие», который войдёт в Книгу Гиннеса. Русский самовар – это символ семьи, дружбы, сердечной беседы, ярмарочных переговоров,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и радушия, это то, что всех объединяет! Оргкомитет для этого события пригласил на площадку фестиваля Международ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регистрации мировых и национальных рекордов.

Заключительным аккордом фестиваля стал гала-концерт при участии Алексея Кортнева с акуст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ой «Частный случай», фолк-рок группы «После 11»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театра фольклора «Русская песн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Надежды Бабкиной, арт-фолк группы «ЕжеВикА» и Дмитрия Нестерова, ставшего победителем конкурса Аллы Пугачевой «Алла ищет таланты». Специальными гостями фестиваля стали солистка Королевского оперного театра им. Дж. Верди г. Парма (Италия) Ольга Леман-Балашова и российский пианист,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России Юрий Розум. Участниками гала-концерта была и танцевальная труппа



Департамен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и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вязей города Москвы, Т.В. Вагина – руководитель департамента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Управления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Г. Бигуаа – руководитель аппарата Комите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тношениям, Н.А. Долгарева – Президент фонда «Культура наций».

Во время Фестиваля были развернуты более 15 тематических площадок, посвященных культуре и традициям различ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России. Это площадки, посвященные музыке и танцам, самобытным национальным костюмам, особенностям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хонь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декоративно – 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уникальным ремеслам.

Смысловым центром праздничной программы САМОВАРФЕСТ стало народное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е чаепитие и гала-концерт. За общим большим столом, вокруг громадного русского самовара собрались офици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руководители Федеральных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автономий 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гости фестиваля.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Ариран – Русь»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А.А. Хан). В праздновании Дня Росс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активисты ООК,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молодеж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многих интерес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оприкоснулись с русской и другими культурами народов нашей страны, отведали блюда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хонь и, конечно же, всех впечатлило общее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е чаепитие вокруг самовара.

Корейская община познакомила участников праздника с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ей, выставила косметические товары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казала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стюмы ханбок. Команд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Чен Ми Ёнг очень содержательно и результативно проводила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аллиграфии и детским корейским играм. На этой площадке было всё время многолюдно. Посетители получили истинн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занимаясь каллиграфией.

Праздник Дня России в Саду ЭРМИТАЖ удался на славу!

Ким Моисей, советник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476руб. 28 коп.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Президент РК встретился со спец-посланнико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12 июня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встретился со специаль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японског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Синдзо Абэ, генеральным секретарём правящей Либераль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сихиро Никаи. Японск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ередал Мун Чжэ Ину послание Синдзо Абэ.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тметил,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не принимает условный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ей и Японией по проблеме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Он также заявил, что японская сторона должна принять этот факт и понять, что для улаживания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понадобится больше времени. Тосихиро Никаи согласился с мнением Мун Чжэ Ина, подчеркнув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политическими кругами двух стран. В послании Синдзо Абэ, помимо прочих вопросов, была затронут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ядерная проблема. Мун Чжэ Ин отметил единство позиций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с Японией,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асается вопроса выживания. Президент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встречу с Синдзо Абэ в рамках саммита «Большой двадцатки»,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начале июля в Германии.

## Юг и Север нуждаются в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каналов связ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различные варианты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каналов связи с КНДР, которые были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ты после прекращения работы Кэсонск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Об этом 13 июня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заявил, что нынешнее отсутствие каких-либо контактов является неудобным и для Севера. Он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налаживания каналов до начала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При этом он указал, что в этом вопрос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е должна первой проявлять открытую инициативу.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астроена на гибкость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12 июн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одтвердила готовность к гибкому подходу к вопросам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есмотря на отказ Пхеньяна принимать заявки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Юга на посещение Север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Ли Док Хэн в ходе очередного брифинга. По его словам,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имает всевозможные меры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провокациям, основываясь на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м союзе. Однако полное прекращ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контактов нежелательно. Поэтому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ыступает за сохранение обменов на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не нарушая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Сообщается, что с 31 ма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добрило 15 заявок НПО на контакты с Севером. Рассмотрения ожидают ещё 20 заявок.

## США давят на КНДР через Китай

США призвали Китай прекратить торговые операции с КНДР, которые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десятком кита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12 июня газета Wall Street Journal, ссылаясь на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его словам, США готовы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инять собственные меры воздействия. Такая позиция связана с предположением о том, чт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ышеуказанных китайских компаний и лиц с КНДР может иметь отношение 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ракетной и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ам. Конкретные имена и названия озвучены не были. По некоторым данным, с 2013 по 2016 год с КНДР работали 5223 китайские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мпании. Большая часть сделок проводилась в рамках закона. Однако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отправлялся товар двой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 С 14 по 18 июня состоится 23-я Сеульск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нижная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С 14 по 18 июня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выставок и конференций KOEX пройдёт 23-я Сеульск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нижная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Её лозунгом на этот раз являетс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160 отечественных издательств, 20 торговых компаний.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павильон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издательства и профильные компании из 18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из Турции, Канады и других. Эксперты помогут выбрать подходящую книгу. На выставке пройдут встречи с известными авторам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Ким Хун, Хван Сок Ён и другие.

(RKI)

## Вышла в свет монография «Категория модальност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15 июня 2017 г.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АСТ г. Москва вышла в свет монография Тен Ен Сун «Категория модальност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нография посвящена малоисследованн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в российском и зарубежном корееведении - категории модальности и, прежде всего, лексическим средствам ее выражения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ыводы автора представлены в контексте широкого привлечения теоретических разработок отечественных, корейских и западных лингвистов, и основаны на богатом эмпирическом материале.

Наряду с научными положениями монография содержит методические рекомендации и упражнения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модальной лексики в практике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русскоязычной аудитории.

Книга рассчитана на лингвистов,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 методист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сех тех, кто ему обучаетс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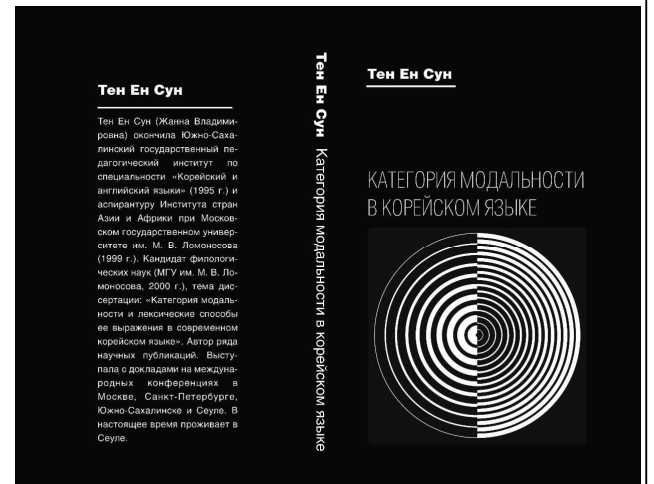
Как сообщил автор, книгу можно будет приобрести в Центре корееведения МГУ.

### Немного об авторе.



Тен Ен Сун (Жан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 сахалинская кореянка в третьем поколении. Закончила восточный факультет (отделение "корейский и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ныне СахГУ),.

По окончании была принята на работу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Институт стран Азии и Африки при МГУ им.М.В.Ломоносова, через год была рекомендована для поступления в целевую очную аспирантуру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10.02.22 - "Языки народов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Азии, Африки, аборигенов Америки и Австралии". Научные руководители - Мазур Юрий Николае-



вич и Ремарчук Владислав Васильевич.

В 1998 году закончила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Ёнсе в Сеуле (6 уровень).

В 2000 году защитила диссертацию по теме "Категория модальности и лексические способы ее выражения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Работала на кафедре филологии ЮВА, Монголии и Кореи в ИСАА при МГУ им. М.В.Ломоносова.

Замужем (муж -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ец), двое детей 14 и 12 лет. В 2006 году уехала с семьей на постоянное жительство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Живет в г. Пусан.

В 2016 году получил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Русский как иностранный" в Институт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ри МГУ им. М.В.Ломоносова.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Тен Ен Сун активно занимается подготовкой открытия школы с углубленным изучением англий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детей (сайт [www.rc-busan.ru](http://www.rc-busan.ru), страница в фейсбуке "Russian College Busan"). Открытие планируется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Ф в Пусане.

Жан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занимает активную позицию в продвижении российск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традиций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 пропагандирует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в частности, сред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проживающих в Пусане.

## Устроивший взрыв в сеульском вузе студент копировал теракт в Петербурге

Корейский студент, который во вторник подложил под дверь своему профессору взрывное устройство, решил пойти на де-факто теракт под влиянием сообщений о трагедии в метр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Об этом он признался в ходе допроса. Следствие не исключает возможности выдвижения обвинений в покушении на убийство.

13 июня утром в одном из ведущих вузов Сеула прогремел взрыв. Он раздалс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ришедший на работу 47-летний педагог открыл лежащий перед дверью его кабинета пакет. Преподаватель получил ожоги руки и лица. Вскоре полиция задержала подозреваемого, которым оказался 25-летний аспирант по фамилии Ким - один из учеников пострадавшего. Под давлением предоставленных доказательств он признался в совершении преступления. В полиции сеульского округа Содэжун, где ведут допрос задержанного, сообщили некоторые подробности признательных показаний "подорывника".

"Ким сказал, что решил пойти на радикальные действия под влиянием сообщений СМИ о теракте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3 апре-

ля этого года. Он подумал, что, сделав взрывное устройство и оставив его у кабинета профессора, он сумеет нанести телесный ущерб человеку. Само взрывное устройство он создавал по образцу того, что было применено в ходе теракта в России в апреле,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как рассказывали СМ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тогда самодельной бомбе", - заявил местным журналистам офицер полиции, который высказался на условиях анонимности.

В качеств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го мотива для желания сделать педагогу что-то плохое, в полици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версию о разногласиях в ходе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Студент писал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офессора научную диссертацию, которую преподаватель сильно раскритиковал. Это, как полагают следователи, сильно обидело аспиранта. Вместе с тем, это пока не окончательная версия мотива преступления.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совершить теракт студент решил еще в конце мая, а к 10 июня завершил создание самодельного взрыв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Всю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ую работу он проделал в своей комнате, которую снимал в жилом

секторе недалеко от вуза. Хозяйка дома, у которой Ким снимал комнату, шокирована известиями о происшествии. Она заявила, что жилец был "очень вежливым и очень усердным студентом".

Сам же Ким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не пользовался "инструкциями для террористов", которые можно найти в интернете, а сам сделал бомбу, используя лишь теоретические знания по свое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эта неопытность "бытового террориста" и спасла педагога. Взрыва как такового не было, а произошло лишь воспламенение пороха. В этой связи поражающие элементы, в качестве которых в бомбе выступили положенные туда шурупы, не разлетелись, а все ограничилось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большими ожогами.

Ким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он не хотел убивать профессора, а планировал лишь "нанести некоторый ущерб его здоровью". Вместе с тем в полиции не исключают, что аспиранту предъявят в итоге обвинения в покушении на убийство, так как, если бы бомба сработала согласно плану, то человек мог бы погибнуть.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 На Сахалине более чем вдвое увеличены объ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убсиди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Островному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у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оказать различные виды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на общую сумму около 2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Такая помощь, по мнению властей, позволит существенно снизить возникающие 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здержки, которые наряду с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и барьерами пока затрудняют реализацию в област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своевременный ввод новых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и открытие производств. Данн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накануне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Совета при полномочн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роводивший его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в округе Юрий Трутнев акцентировал внимание губернаторов на важности повыше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к ключевого фактора их развития. Эта работа вед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от ее качества во многом зависит будущее территорий и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их жите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обый упор сделан на развитие каналов обратной связи с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ом.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новом статусе – как открытая дискуссионная площадка – работает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Совет. Его состав кардинально обновлен – теперь полови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 бизнесмены. В работе совещательного органа могут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се желающ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озвучивая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или заявляя о проблемах.

Еще одна площадка для коммуникации бизнеса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ортал. Сейчас продолжается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данного Интернет-ресурса, который призван знакомить россий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 инвестицио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выбору места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бизнеса. Информация на портале доступна на двух языках – рус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Через него можно подавать документы на получение мер господдержки, а также напрямую обращаться к руководству региона и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Схожие возможности имеют и еще два сайта –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www.resident-sakhalin.ru](http://www.resident-sakhalin.ru)) и «Свобод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 ([www.resident-korsakov.ru](http://www.resident-korsakov.ru)).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бизнесменам оказывают три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 Сахалин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в 2016 году рассмотрело более 150 заявок, выделив из них 47 на получени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еспечивает финансами проекты на сумму около 6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и Фонд поддержк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за 2016 год выдал 102 займа на сумму более 169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редоставил 72 поручительства на 247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круп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на Сахалине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выделяются в аренду без проведения торгов. Упрощена форма бизнес-плана, который инициаторы проектов предоставляют на экспертизу. Кроме того,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референции резидентам двух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Южная» –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и «Горный воздух» –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такой режим действует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 льготы по налогам на прибыль, землю, имущество, что является стимулом для открытия нов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созда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улучше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подчеркнули на заседании, имеет сокращени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барьеров при проведении различных процедур. В островном крае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достигнут ряд положитель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Среднее время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по оценке, сегодня составляет не более недели. Сроки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я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кращены до 90 дней (при установленном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ориентире 129 дней), постановления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на кадастровый учет – до 31 дня (эталон – 38 дней), а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госэкспертизы уменьшен с 52 до 45 дней.

Среднее время выдачи лицензий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медицин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егионе сегодня составляет 26 дней (вместо 45, установленных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а на пассажирские перевозки – 33 дня (вместо 45 дней).

Среди других показателей, имеющих значение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ов, – охват населения широкополосным Интер-

нетом – на Сахалине он достиг 85 процентов, а также до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контрактов с субъектами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которая сегодня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16 процентов.

С учетом указанных выше и прочих индикаторов, влияющих на деловую активность, был составлен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рейтинг субъектов страны за 2016 год. При этом отмечены существенные расхождения в оценках.

Например, по-разному оценили такой ключевой показатель как «регулирующее воздействие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при орган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и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Согласно заключе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Сахалин в 2016 году сделал качественный прорыв и покинул группу аутсайдеров, переместившись вверх на 28 строчек – с 84 на 56 место. При этом в рейтинге агентства регион по-прежнему сохранил невысокое положение.

Еще одно профильное федер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 коммуникаций и связи поместило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11 позицию среди всех субъектов страны по качеству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услуг. А вот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вновь не согласилось с такой оценкой, значительно ее занизив.

При анализе эта же федер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которая и составляет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рейтинг регионов, не учла такие важные показатели, как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оцедур по выдаче разрешения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оцедур по постановке земельного участка на кадастровый учет», а также «наличие рег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 У нас, конечно, есть вопросы и к качеству рейтинга, и к агентству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Например, в рейтинге учитываются рабочие места, созданные в технопарках, а в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 почему-то нет. Или не учитывается работа субъектов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ектаров. Да нет сегодня в стране других территорий кром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где за 2 месяца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землю. Поэтому методику наши коллеги обещали пересмотреть и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Но и от регионов требуется вывести эту работу на новый качественный уровень, – сказал по итогам совещания Юрий Трутнев.

## Сахалинский фермер предложил Юрию Трутневу ввести нов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ользователе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ектаров

Начинающий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ь из Смирных Алексей Новиков накануне вышел на прямую видеосвязь с вице-премьером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олномоч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Телемост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в рамках пленарного заседан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медиасаммита – главного события медиаотрасли, проходящего в конце прошлой недел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х регионов поделились личным опытом использован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ектаров. Сахалинец в своем обращении, которое транслировалось в приморский город с поля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села Орлов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не ограничился лишь констатацией возникших проблем. Были предложены новые действен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ользователей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и журналист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ризнали выступление сахалинца одним из самых ярких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еподаватель технологии из островной глубинки Алексей Новиков рассказал, что полгода назад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взял по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9 гектаров бывшей совхозной земли в районе села Орлов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Участок был оформлен в пользование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по коллективной заявке. На семейном совете сахалинцы решили, что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ом – выращивать картофель и овощи, а в последующий период – животноводством, построив здесь свиноферму пол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цикла на 600-900 голов.

– Но одного энтузиазма оказалось мало, мы сразу столкнулись с проблемой – поле в течение 20 лет не обрабатывалось тяжелой сельхозтехникой. В районе нет мощных машин и агрегат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днять залежную землю. Поэтому возникло предложение – создать на базе одного района или даже нескольки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машинно-техническую станцию, где участники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гли бы брать в аренду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машины для обработки земель,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Новиков.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отметил он,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стали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уделять развитию аграр-

ной отрасли. Помощь оказываетс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и крупным хозяйствам. Однако, считает житель Смирных, требуется, чтобы мерами поддержки в полной мере были охвачены и участники програм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в частности начинающие фермеры. К примеру, на освоение наделов сейчас им выделяется грантовая помощь в размере до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о ее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лишь на покупку семе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и минеральных удобрений.

– Хотелось, чтобы эти средства можно было направлять и на другие, не менее значимые для нас цели: аренду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и строительной техники, закупку стройматериалов, бурение скважин под воду, а также услуги кадастровых инженеров, – озвучил следующую инициативу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ь.

После этого он задумался вопросом 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изведенной в последующем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и. Найти объемный рынок для ее сбыта в островной глубинке – задача не из легких, признал сахалинец. Один из вариантов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 предоставлять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При этом, убежден Новиков, все пользовател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ектаров должны быть освобождены от конкурсных процедур. Для этого следует внести изменения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44-ФЗ о госзакупках.

Зал, где собрались руководители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руководители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и журналисты, встретил идеи агрария с Сахалина аплодисментами. Одобрил прозвучавшие предложения и Юрий Трутнев.

– Очень четкие и правильные у вас инициативы, обязательно их рассмотрим и будем помогать, – заверил вице-премьер смирныховца. – Запуская программу п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гектару мы,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тели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людям работать на земле.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не только для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но 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бственного жилья. Это некая совершенно иная степень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вободы. В реализации закона, безусловно, есть сложности. Но самый главный вывод: он востребован людьми. У нас состоялось совещание с Роснедрами и Рослесхозом, где мы говорили о том, какие земли из тех, которые они пока не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редоставлять можно.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этих совещаний разработаны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 они внесены в Госдуму, идут обсужде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мы сможем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ть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предоставлены гражданам.

По словам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возьмут в проработку и другие предложения фермера, решение которых входит в компетенцию региона.

В цело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от граждан на получение земельных наделов поступило 8402 заявления. В пользование предоставлено 3395 участков общей площадью 2435 гекта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насчитывается 7 мест компактног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ектаров. Расположены они в тр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ы сел Соловьевка, Охотское и реки Подорожка), Долинском (территория южнее села Южный Сокол и западнее села Сокола) и Анивском (район села Песчанское, Таранай)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Организована работ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их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На сходах граждан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двух нов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Первый –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объединит 65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общей площадью 85 гектаров, второй – в Корсаковском – 86 наделов площадью 101 гектар.

Среди действующих мер поддержки получателей гектаров на Сахалине – субсидии в размере 50 процентов текущих лизинговых платежей на сельхозтехнику (не более 5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1 гектар), гранты в размере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семе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картофеля, овощных или кормовых культур, минеральных удобрений, известняковой муки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животных.

Этими видами помощи уже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59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52 человека получили в лизинг на льготных условиях 93 единицы сельхозтехники (трактора «Беларусь», картофелесажалки, картофелекопалки, плуги, косилки, фрезы, бороны, разбрасыватели удобрений). За получением грантов на разведение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приобретение семе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и пчелосемей в этом году обратились 7 хозяйств, расположившихся на земля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ектар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재외동포재단,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3기 국내 순회 설명회 개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대전 5개 지역서 순회 설명회 열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이 국내 청년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프로그램의 3기 지원자 모집을 위해 6월 7일부터 15일까지 8박 9일간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대전 5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은 재외동포 경제인이 참가하는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구축된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채용 및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2017년 총 150여명의 국내 청년을 한상기업에 파견할 예정이다.

각 지역 거점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턴십 3기 지원자 모집을 위한 일대일 상담 및 해외 취업 관련 상담이 진행되었다.

6월 8일 광주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와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일

정을 시작으로 10일 서울 코엑스, 11일 부산 이비스 엠버서더에서 진행됐다. 12일과 13일에는 대구 영남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되며, 대전 한남대학교와 충남대학교, 대림관광호텔에서 14일과 15일 양일간 진행된 설명회를 끝으로 일정을 마쳤다.

이번 인턴십 3기 지원자 모집 기간은 6월 18일까지이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1백 명의 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인턴에게는 인턴기간 동안 매월 1백만 원의 지원금과 보험, 국

내 사전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주철기 이사장은 "국내 청년들에게는 해외 인턴십을 통해 자신의 소양을 더욱 넓히는 계기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해외 진출을 통해 청년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면서 차세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인턴십의 취지"라며, "열정과 도전정신을 갖춘 국내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상기업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원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2

### 한국 소설을 읽으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전호의 계속)

(2) -(ㄴ/는)다 하면 하나같이 - "если сказать, что..., то все..."

Примеры:

우리 받은 한 번 무슨 일이든지 하기로 하면 하나같이 열심히 한다.

→ Если мы решили что-либо сделать, то в нашей группе все как один начинают усердно стараться.

올림픽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려면 온 나라 국민이 하나같이 기뻐할 것이다.

→ Если сказать, что такая-то страна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на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то наверное, граждане этой страны все как один будут ликовать и танцевать.

(3) -(ㄴ/는)다(고) 해도 "даже если...", "пусть даже..."

Примеры:

갈등이 있다고 해도 접촉은 이루어져야지.

→ Надо идти на контакт, даже если существуют противоречия.

그대와 나 떨어져 있다고 해도 내게 있어 당신은 너무나 그리운 사람이다.

→ Даже если ты и я не вместе, для меня ты тот человек, по которому я всегда тоскую.

워낙 국내 대표 선발전이 치열하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해도 세계선수권 대표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 Борьба за зва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траны проходит настолько жестко, что нет гарантий стать им даже для обладателя золотых олимпийских медалей.

(4) -(ㄴ/는)다고 해서 "сделав...", "сказав (подумав), что..."

Примеры: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서 모른 채 할 수 있겠는가?

→ Как бы ни было тяжело материально, разве можно делать вид, что ничего не знаешь.

관심이 없다 해서 강의를 안 들으면 되느냐?

→ Разве можно не слушать лекцию, даже если тебе не интересно?

아무도 안 본다 해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

→ Нельзя выбрасывать мусор где попало, даже если никто не видит.

(5) -(ㄴ/는)다(고) 할 지라도 - "даже если будет..., то все равно"

Примеры:

너를 어디선가 마주친다 할 지라도 아는 척하지 않을 것이다.

→ Если я где-нибудь и встречу с тобой, я сделаю вид, что не знаю тебя.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내 앞을 가로 막는다고 할 지라도 극복하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 Какие бы трудности и страхи не вставали на моем пути, я преодолею их и буду идти дальше.

사람이 마음 속으로 자기 갈 길을 계획한다고 할 지라도 다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 Хотя люди и строят в сердце планы относительно своего пути, но не все получается по задуманному.

### 쓰기 연습 Письменные упражнения

1. 보기와 같이 '(ㄴ/는)다(고) 하더라도'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사용하세요.  
보기 다이어트 하다 / 운동을 해야 된다.

→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동을 해야 돼요.

(1) 한국어를 잘 한다 / 역사와 경제를 또한 배워야 한다.

→

(2) 온라인 게임 좋아한다 /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

(3) 어제 백화점에서 드레스를 샀는데 동생 마음에 들었다.

→

(4) 수업 중에 문자 메시지 왔다 / 답장 보내면 안 된다.

→

(5) 커피는 몸에 해롭다 / 하루에 한 잔씩 먹는 것은 건강에 좋다고 한다.

→

2. 보기와 같이 '-(ㄴ/는)다 하면 하나같이'를 사용하여 문장을 바꾸세요.  
보기 학생들이 휴강을 좋아합니다.

→ 휴강을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하나같이 좋아합니다.

(1)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면 좋아합니다.

→

(2) 아이나 어른이나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것을 싫어합니다.

→

(3) 축구 경기를 할 때 남자들은 텔레비전을 봅니다.

→

(4) 대학생들은 시험을 치는 일을 싫어한다.

→

(5)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대접을 잘 합니다.

→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 [우리말로 깨닫다]

### 아이들이 본 외계어

어른들은 아이들의 통신언어를 보고 깜짝 놀란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면 암호 천지다. 아이들끼리는 전화 통화도 거의 안 한다. 실제로는 문자메시지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전화의 문자를 보내고 받는 행위가 일방적이어서 상호소통의 느낌이 없어서일 거다. 여러 명이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어른들은 아이들의 통신언어를 보고 도대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한다. 만약 'ㅇㅈ'라는 표현을 보고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그래도 아직은 젊은 거다. 이 말은 인정한다는 의미의 <인정>을 줄여 쓴 표기라고 한다. 인간의 의사소통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송에서는 이런 경우를 <외계어>라고 부른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이들의 말은 외계인끼리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재미있는 말을 들었다. 아이들이 말하는 외계어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아이들에게는 통신언어는 일상어이지 외계어가 아니다. 오히려 편리한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이다. 그럼 뭐가 외계어일까?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하는 어려운 말이 외계어라고 한다.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도 않는 말을 어른들이 쓸 때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멘붕>이 온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아이들은 <분탕질>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시국이 어수선하다보니 <분탕질>이라는 표현이 아이들 귀에 자주 들렸나보다. 아이들끼리 무슨 뜻인지 궁리도 해 보았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안 좋은 의미라는 것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니 외계어가 아니고 뭐냐는 말이었다. 이렇게 아이들은 어른들이 사용하는 어려운 표현들에 심한 거부 반응을 갖고 있었다. 분탕질의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1. 집안의 재물을 다 없애 버리는 짓 2. 아주 야단스럽고 부산하게 소동을 일으키는 짓 3. 남의 물건 따위를 약탈하거나 노략질하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쉬운 표현이 아니다.

물론 국어 공부를 위해서, 어휘력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단어들을 공부하고 풍부하게 사용한다면 좋을 것이다. 어려운 어휘나 고사성어도 틈틈이 익히면 사고력의 확장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표현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지나치게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보인다. 타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그가 못 알아들을 만한 표현을 자주 꺼내어 쓰는 것은 의사소통의 단절을 가져온다.

굳이 어려운 표현을 쓰고자 한다면 청자나 독자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사용해야 한다. 혹여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표현은 아닌지 주의 기울여야 한다. 청자가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뜻풀이를 덧붙일 필요가 있다. 말이란 의사소통이 목적이 아닌가? 좀 더 친절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서로 수준이 비슷하다면 그냥 편하게 말을 해도 되겠지만 말이다. 알아들지 못할 만한 말을 하면서 상대방만을 탓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제 세대에 따라 쓰는 말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그 간극은 별과 별 사이처럼 느껴진다.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의 말과 표현이 외계의 말처럼 느껴지고,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표현들이 판 세상의 언어처럼 느껴진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인다면 즐거운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 이참에 아이들의 통신언어 세계에 어른들도 빠져 보는 것은 어떨까?

출처: 재외동포신문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이 책들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러시아의 유일한 도서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들에 대한 다채로운 역사를 얘기한다. 저술에는 미하일 위소코브 역사학 박사와 <구베른스키에 웨도모스찌> 출판사의 기자 와짐 고르부노브가 참가했고 사진작가들 중에 이름난 도서지역 사진작가인 세르게이 크라스노우호브와 그의 동료 블라지미르 데이킨, 올레그 파르신, 웨니아민 블라지미로브, 유리 스키류크 등의 사진이 삽입되었다.

<비즈니스부문 우수 도서>부문에서 <동부를 지배한다. 극동지역의 사업가 - 계몽가와 공로자 (어떻게 시작했는지)>란 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루베즈>출판사는 이 책을 <러시아 기업 역사>시리즈로 <비즈니스 러시아>연해주지역단체와 공동으로 발행했다. 이 책의 저자는 역사학 박사, 극동연방대학교 교수이며 극동지역 역사에 대한 많은 책을 펴낸 아미르 히사무트지노브이고 책의 구성은 유명한 블라디보스토크의 화가 알렉산드르 글린스코브가 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26회로 개최된 전국 <올해의 우수 도서>콩쿠르는 더욱 흥미로운 책을 선정하여 장려하고 이들을 15개 부문으로 나누어 우수한 지역출판사들의 기획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엔 지리적으로 대표적인 것들이 대단한 관심을 끌었고 출판 및 저자들의 기획 또한 높은 수준의 준비가 특별했던 점으로 보인다. 콩쿠르에는 5개국에서 536의 출판 기획사들의 출판물들이 들어왔고 이중 147개의 출판사는 러시아연방 모든 지역을 대표했다.

<올해의 우수 도서>전국 콩쿠르의 수상자 시상식은 모스크바 도서축제 일환으로 6월 5일 <붉은 광장>에서 진행되었다고 <루베즈>출판사 홍보실이 전했다.

## Лучшей книгой о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ах признана серия о Сахалине

Тихоокеанск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Рубеж»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стало лауреат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Лучшие книги года».

Традиционное состязание проводит Ассоциация книгоиздателей России. «Рубеж» победил

сразу в двух номинациях. Он получил почетный диплом и статуэтку первопечатника Ивана Федорова.

Победителем этого престижного конкурса стала новая серия издательства «Гор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а признана лучшей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ая книга о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ах». В нее вышли сразу три крупноформатные иллюстрированные полноцветные книги (в подарочных футлярах) на рус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о Корсакове, Невельске и Долинске. Они рассказывают о яркой истории малых городов единственной в России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Авторами текстов выступили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Михаил Высоков и корреспондент издательского дома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 Вадим Горбунов. Среди фотографов есть известный островной мастер Сергей Красноухов и его коллеги Владимир Дейкин, Олег Паршин, Вениамин Владимиров, Юрий Смитюк и другие.

Лауреатом конкурса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ее издание деловой литературы» стала также книга «Владеть Востоко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просветители и меценаты (как всё начиналось)». Издательство «Рубеж» выпустило её в серии «Ис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совместно с приморск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Деловая Россия». Она принадлежит перу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втора многих книг по ис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мира Хисамутдинова. Оформил книгу известный владивостокский художник Александр Глинщиков.

Подобные проект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реализуются впервые.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Лучшие книги года»,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 этом году уже 26-й раз, неизменно стремится продвигать и поощрять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ые книги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лучшие региональные издательские проекты, распределив их по 15 номинациям.

Особенностью этого года стал весьма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й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охват и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издательских и авторских проектов. На конкурс поступило 536 издательских проектов из пяти стран. 147 издательств представили все реги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Лучшие книги года» состоялась 5 июня в Москве в рамках книжного фестиваля «Красная площадь»,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издательства «Рубеж».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 Покупай онлайн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i>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 (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